

〈우활가〉의 작품세계와 그 의미

정기선*

- I. 서론
- II. <우활가>의 작품세계
- III. <우활가>의 문학사적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지금까지 <우활가>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작자 정훈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을 두거나 작품에 나타난 정서를 해석하는 데 큰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면 정훈을 몰락한 양반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작품에 나타난 정서를 비롯해 <우활가>의 작품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 국문시가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활가>의 주제인 우활도 17세기 가사 문학사에 새롭게 등장한 주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우활가>의 작품세계를 정체성의 측면에서 해석함과 동시에 ‘우활’이라는 주제의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우활의 의미를 검토하고, 우활을 다룬 동시대 작가인 박인로의 가사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활가>의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핵심어: 정훈, 우활가, 박인로, 누항사, 17세기, 가사.

1. 서론

그동안 17세기는 시가 문학사에 있어 중요한 논쟁적 시기였다. 지속과 변화,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라는 시각차에 따라 이 시기의 문학사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전이 이루어졌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어느 시점을 경계로 이전에는 지속의 경향이, 이후로는 변화의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17세기 전반기는 변화를 추동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산재해 있었다. 이들 사건은 당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편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강한 추동을 이끌어냈다.¹⁾ 이 시기의 시조와 가사를 창작한 사대부 작가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전시기를 계승하거나 혹은 변화를 모색하는 입장을 선택해 나갔다.²⁾ 이들은 강호, 우국, 궁핍, 우환, 안빈, 오륜 등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시조와 가사를 창작했는데, 그 핵심은 사족으로서의 가문과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³⁾ 전란과 당쟁으로 점철된 이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야 했던 국문시가 작가들의 작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가로 정훈(鄭勳, 1563~1640)을 들 수 있다. 정훈은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성주중흥가(聖主中興歌)>,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노래한 <용추유영가(龍湫遊泳歌)>와 <수남방옹가(水南放翁歌)>,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한 <탄궁가(嘆窮歌)>, 자신을 우환한 존재로 그린 <우환가(迂闊歌)>, 이외에도 『경주정씨 세고(慶州鄭氏世稿)』⁴⁾에 한역의 형태로 전하는 <우희국사가(憂喜國事

1) 17세기 시가 문학사에 관한 논전 양상은 박이정의 논문에 요령 있게 정리되었다. 박이정, 『17세기 전반기 가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7면.

2) 앞서 참고한 박이정의 논의에 따르면 고응척·이현·이호민·이원익과 같은 중심부에 있는 작가들은 이전의 풍류 전통을 계승하고 이념의 확인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고, 조우인·박인로·정훈과 같이 주변부에 있는 작가들은 앞서 중심부에 있는 작가들의 지향을 자기화하여 중심부에 편입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지향과 충돌을 일으키는 내면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혼란기에 공격을 세운 최현·김충선과 같은 작가들은 그 기억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다른 이들과는 변별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이정, 위의 논문, 219면.

3)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제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제39집, 민족어문학회, 1999, 194~195면.

歌)>5), 박세채(朴世采)가 찬한 『수남방옹정공가장행적(水南放翁鄭公家藏行蹟)』에 창작 기록만 남아 있는 <위유민가(慰流民歌)>6) 등 다양한 유형의 가사를 창작했는데, 이는 정훈이 가사를 매우 친숙한 문학 장르로 여겼으며 나아가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절실한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7) 이들 작품 중에서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작품이 바로 <우월가>이다.

<우월가>에서 정훈은 자신을 우월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이 지점이 <우월가>의 핵심이라는 점은 선행 연구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해 정신적 우월감에 대한 표현8) 혹은 좌절에 따른 탄식9)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우월가>에 나타난 정훈의 자기 인식과 그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선행 연구 중 일부는 <우월가>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몰락한 향반층의 현

- 4) 『경주정씨세고』(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동인 편역, 『경주정씨세고』, 회상사, 2002 참조.
- 5) 김문기, 『鄭勳의 <憂喜國事歌>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31집, 국어교육학회, 1999, 99~126면 참조.
- 6) “見趙玄谷流民歎, 卽作慰流民歌以悲之”, 박세채, 『수남방옹정공가장행적』. 정훈의 가사 작품들이 수록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 7) 권순회에 따르면 17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재지사족 작가인 박인로, 정훈, 강복중, 김득연 등은 국문시가를 통해 자신의 처지와 관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는 이들 작가들이 한시보다 국문시가를 자기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한다. 강경호도 정훈이 시가 창작과 향유를 단순히 여기(餘技)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적극적인 표현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 이전의 사대부 작가들과 변별되는 지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권순회, 앞의 논문, 194~195면 참조; 강경호, 『정훈 시가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 재고』, 『한민족어문학』 제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 202~203면.
- 8) 한창훈, 『박인로 · 정훈 시가의 현실인식과 지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채수록 : 한창훈, 『17세기 향반계층 시가의 형성 : 박인로 · 정훈을 중심으로』,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권순회, 앞의 논문; 이상원, 『사족층의 분화와 정훈의 시가』,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1; 채수록: 신영명 · 우용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강경호, 『정훈 시가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 재고』, 『한민족어문학』 제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 오선주, 『정훈의 ‘우월 의식’에 대한 재고』, 『고시연구』 제22집, 한국고시학회, 200; 조은별, 『水南放翁 鄭勳 국문시가의 세계 인식과 표현양상』, 고려대학교 석사 논문, 2014.
- 9) 최상은, 『정훈 가사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문학적 형상』,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이승남, 『17세기 강호가사의 전환기적 서정-정훈의 <옹유유영가>와 <수남방옹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28집, 우리어문학회, 2007; 이승남, 『정훈가사의 이념과 현실의 정서적 형상화-<성주중흥가> · <탄궁가> · <우월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4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실 인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⁰⁾ 하지만 정훈과 관련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작품에 나타난 생활상이 실제의 삶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작가 정훈을 단순하게 향반층 일반에 귀속시키는 것이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여기에서 우리는 정훈을 비롯해 17세기 시가 문학사를 구성하는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토로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은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는 자기(self)의 확장된 개념으로, 자기와 타인, 사회와의 간격을 연결시켜주는 동일시라는 심리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치성·통일성·개인성을 전제로 하나의 자기를 추구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자기를 만나게 되는 사고의 과정이기도 하다.¹²⁾ 정체성의 모순적 과정이 <우활가>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활가>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작가 정훈의 심리적 갈등과 고민이 녹아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주목하여 본고는 <우활가>의 작품세계를 검토하고, 동시대 작가인 박인로의 가사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우활가>의 가사문학적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II. <우활가>의 작품세계

<우활가>를 비롯해 정훈의 현전하는 시가 작품들은 한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수남방옹유고(水南放翁遺稿)』에 수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 유고는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 사본이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³⁾ 원자료에

10) 한창훈, 앞의 논문; 한창훈, 『17세기 향반계층 시가의 강호 인식』, 신영명·우용순 외, 『조선전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최홍원, 『정훈 시가 다기성에 대한 시학적 이해』, 『국어국문학』 제159집, 국어국문학회, 2011.

11) 정훈을 몰락한 양반인 향반으로 규정하려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숙영, 『정훈 문학의 현실적 토대와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제35집, 국어국문학회, 1998; 이상원, 『정훈 시조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11집, 우리어문학회, 1997; 권순희, 앞의 논문.

12) 루이스 부레거, 홍강의·이영식 역, 『인간 발달의 통합적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424~426면 참조.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정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영인본을 통해 이루어졌다.¹⁴⁾ 그러나 영인본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기에 재판독이 요구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우활가>의 작품세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엇지 삼긴 몸이 이대도록 迂闊호고
迂闊도 迂闊홀사 그레도록 迂闊홀사
이바 벗님네야 迂闊호 말 들어 보소

<우활가>의 서두에서 화자는 자신을 우활한 존재라고 이르며 자신의 문 제인 우활함을 현상적 청자인 벗님들에게 토로한다.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대사회적인 발화로 판단된다.¹⁵⁾ 하지만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존재로 ‘벗’이라는 친숙하고 사사로운 존재를 설정했다는 것은 화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화자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자는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답답함의 무게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이내 저머신 제 迂闊호미 그지업서
이 몸 삼겨나미 禽獸에 다르므로
愛親敬兄과 忠君弟長을 分內事만 헤엇더니

13) 『고시조 문헌 해제』에 따르면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박물관장을 지낸 김양선 선생이 한남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문화재 가운데 정훈의 시문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시문집의 현재 소장처를 한남대학교 박물관이라고 했으나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 필자가 송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사본의 표제는 『수남방웅정공가장행적(水南放翁鄭公家藏行蹟)』이다. 송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유고의 표제가 이와 같은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신경숙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492~493면 참조.

14) 박요순은 정훈과 그의 시가 작품을 소개하면서 정훈의 유고를 영인본의 형태로 함께 수록했다. 이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했다. 박요순, 『정훈과 그의 시가』, 『한남어문학』 제2집, 『정훈과 그의 시가』,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73; 재수록: 『한국시가의 재조명』, 탐구당, 1984, 79~108면 참조; 『水南放翁遺稿(影印)』, 『한남어문학』 제2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73 참조.

15) 최홍원은 이 같은 행위를 정훈이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 모색과 세계관 정립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심층에는 그러한 판단과 입장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발화로서의 기능이 의도되어 있다고 본다. 최홍원, 앞의 논문, 164~165면.

혼 일도 못 되며 歲月이 느저지니
 平生 迂闊은 날 뿔와 기러 간다
 아침이 不足흔들 저녁을 근심하며
 一間 茅屋이 비 시는 줄 아뵈던가
 懸鶉百結이 붓쓰려움 어이 알며
 어리고 미친 말이 늙 무일 줄 아뵈던가

화자는 벗님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한다. 젊은 시절 화자가 추구했던 삶은 『소학 제사(小學 題辭)』의 “愛親敬兄과 忠君弟長”이라는 구절로 상징되는 삶이었다. 그것은 유교 윤리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다. 급수와 다르기에 이상적 가치를 자신의 분수로 믿고 따랐건만 화자에게 남은 것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드리운 우환함의 그림자뿐이다. 화자는 의식주로 상징되는 실제의 생활에서 어느 하나 이룬 것이 없다고 탄식하며, 어리석고 미친 말로 남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토로한다. 앞서 화자는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그렇기에 그의 언행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자신을 미워했다는 진술은 화자와는 다른 삶을 지향하는 존재들과의 갈등으로 화자가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앞서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벗’을 찾은 것도 이러한 ‘관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¹⁶⁾ 지금까지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화자가 왜 우환한 존재가 되었는지, 의식주와 관계의 문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迂闊도 迂闊홀샤 그레도록 迂闊홀샤
 春山의 곳을 보고 도라올 줄 어이 알며
 夏亭의 즈을 드러 썸 썰 줄 어이 알며
 秋天의 들 마자 밤드느 줄 어이 알며

16) 권순회는 정훈의 시가 가 남원의 유력 재지사족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정소연도 같은 맥락에서 정훈이 특정한 사건과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시조를 창작했다고 보았다. 실제로 정훈의 시조에서 ‘벗’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훈에게 ‘벗’으로 상징되는 관계의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환가>를 제외한 다른 가사와 시조 작품에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권순회, 앞의 논문, 195면 참조; 정소연, 『조선 중·후기 시가의 양층언어문학사』, 새문사, 2014, 36면 참조.

冬雪에 詩興 계워 치움을 어이 알리
四時 佳景을 아므란 줄 모로라
末路에 버린 몸이 므스 일을 슴렘홀고
人間 是非 듯도 보도 못흐거든
一身 榮枯 百年을 근심홀가

여전히 화자는 자신을 우활한 존재라고 평가하지만 화자는 ‘春山, 夏亭, 秋天, 冬雪’이라는 자연을 배경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자연의 정취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四時 佳景을 아므란 줄 모로라”라는 진술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화자를 우활한 존재로 평가하고, 위축시켰던 항목들은 모두 인간 세상의 문제였다. 반면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세계는 사계절로 상징되는 자연미가 구현된 시공간으로, 우활하다는 세속의 평가가 통용되지 않는 세계이다. 인간 세상의 시비가 전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세계이기에 ‘一身 榮枯 百年을 근심홀가’라며 화자는 자신에 대한 근심이 해소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화자의 근심은 “迂闊도 迂闊홀샤 그레도록 迂闊홀샤”라는 탄식의 반복처럼 강호자연의 아름다움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앞서 화자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末路에 버린 몸”에서 말년(末年)을 의미하는 말로라는 표현은 <우활가>가 작가의 노년기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우활가>의 작가 정훈은 왜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할 노년기에 자기의 내면을 남김없이 드러내면서까지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 단서는 이어지는 버린 몸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정훈이 자신을 버려진 존재로 인식한 것은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직으로의 진출이 요원했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처지는 사족으로

17) 사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지배층을 뜻하는 양반·사대부·사족·사류·사림 등의 용어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 김성우에 따르면 사족의 개념과 범주는 중종 대에 사족과 토호를 엄격히 분리하기 위하여 논의에서 출발하여 ‘4조 내외 가운데 한쪽이라도 과거 혹은 음서로 문·무과 정직 6품 이상에 진출한 관료를 배출한 가문의 후손 및 생원·진사로 범주가 확장됐고, 이것이 『각사수교』에 등재되어 법적용어로 확정됐다고 한다. 이를 통해 사족의 사회적·신분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성우, 『조

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 곧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훈은 자기를 우월한 존재로 다시금 명명한다.

迂闊홀샤 迂闊홀샤 그레도룩 迂闊홀샤
 아춤의 누잇고 나죄도 그러흐니
 하늘 삼긴 迂闊을 내 혈마 어이흐리
 그레도 애똥도다 고쳐 안자 싱각흐니
 이 몸이 느저 나 애돌온 일 하고 만타
 一百 번 다시 죽어 넷사람 되고라자
 羲皇天地에 잠간이나 노라 보면
 堯舜日月을 저그나 띄을 썬술
 淳風이 已遠흐니 儉薄이 다 되거다
 汗漫호 情懷을 놀드려 니르려뇨
 泰山의 올라가 天地八荒이나 다 브라 보고제고
 鄒魯에 두르 거러 聖賢 講業흐던 자취나 보고제고
 周公은 어디 가고 썬의도 비잔논고
 已甚호 이내 衰¹⁸⁾를 슬허흐다 어이흐리
 萬里에 눈 쓰고 太古에 띄즐 두니
 迂闊호 心魂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

여기에서 화자는 자신의 우월함을 천부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만든 현실에 대한 울분도 함께 드러낸다. 화자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화자는 인간 세상이 아닌 자연미가 구현된 시공간을 통해 자기의 실존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실존적 근거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해야 만이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선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 강만길 편,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349~350면 참조.

18) 앞서 정확한 판독이 요구된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여러 자료집과 선행 연구에서는 '衰'를 '襄'으로 판독해 왔으나 오선주의 지적처럼 '衰'가 옳다. 필자 역시 본문의 '衰'는 '衰'의 이체자로 판독해야 한다고 본다. 오선주, 앞의 논문, 197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의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도로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마주한 현실은 “淳風이 已遠히니 儵薄이 다 되거다”라는 진술처럼 자기의 실존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화자는 “이 몸이 느껴 나 애들은 일 하고 만타 / 一百 번 다시 죽어 넷사람 되고라자”라며 현실이 아닌 상상의 세계를 꿈꾸며 그 세계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드러낸다. ‘羲皇天地’와 ‘堯舜日月’로 상징되는 태고적 세계와 ‘周公’과 같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성현이야말로 화자가 동일시한 존재로, 짧은 시절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화자가 생각한 정체성의 근거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식한 화자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났다는 논리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¹⁹⁾ 탄식이 긴 만큼 화자는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서술하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화자는 “萬里에 눈 쓰고 太古에 뜻줄 두니 / 迂闊한 心魂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라며 불의한 현실과의 화해를 끝내 거부한다.²⁰⁾

人間の 호자 찌여 늘드려 말을 홀고
祝鮀의 佞言을 이제 비화 어이 허며
宋朝의 美色을 얼근 늦춰 잘 홀런가
右詹山²¹⁾ 草實를 어디 어디 머그려노
무이고 못 고이머 다 迂闊의 타시로다
이리 헤오 저리 헤오 다시 헤니

19) 이상원, 앞의 논문, 1997, 249~250면.

20) 여기에서 권순희는 정신적 우월감을 전제로 강호와 성현의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추론했으나 오히려 현실과의 화해를 거부한 화자의 절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읽어와 하지 않을까 한다. 권순희, 앞의 논문, 212~213면.

21) 위의 ‘衰’에 이어 정확한 판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右詹山’의 ‘詹’을 ‘담’으로 읽기도 하고, ‘右詹山’ 자체를 미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 진나라 장화가 편찬했다고 알려진 『박물지(博物志)』에 따르면 “우첩산에 사는 체녀가 화하여 철초가 되었는데, 그 잎은 무성하며 꽃은 누렇고 열매는 콩과 같아서, 이것을 복용하면 사람을 미혹시킨다.[右詹山, 帝女化爲詹草, 其葉鬱茂, 其華黃, 實如豆, 服者媚于人.]”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右詹山 草實’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상상 속의 약재임을 알 수 있다.

一生事業이 迂闊 아닌 일 업너와라
 이 오환 거느리고 百年을 어이흐리
 아희아 잔 ㄱ득 부어라 醉호여 내 迂闊 닛다

현실과의 화해를 거부한 화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다.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벗님’에게 했지만, 남은 것은 현실과의 화해를 거부한 자신밖에 없다. “人間的 호자 씨여 놀드려 말을 흘고”에서 화자는 자기 혼자만 깨어 있으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 건넬 사람이 없다고 토로한다. 『어부사(漁父辭)』에서 굴원이 어부를 만나 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홀로 자신만 깨끗하고, 온 세상이 모두 취해 있는데 자신만 깨어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화자는 왜 교언영색의 대명사인 축타와 송조를 언급했을까? 현실적 욕망을 채우고 싶다는²²⁾, 세상에 대한 미련의 또 다른 표현일까? 그러나 사람을 미혹시키는 우점산의 풀과 열매를 구해서 먹을 수 없다는 화자의 고백처럼, 이 일이 헛된 일임을 화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축타와 송조를 언급한 것은 화자에게 체일로 심각한 문제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이고 못 고이미 다 迂闊의 타시로다”라는 화자의 탄식처럼 자기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 받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이 괴롭고 슬픈 일이다. 그렇기에 화자의 근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울화가 될 수밖에 없다. 화자는 “이리 헤오 저리 헤오 다시 헤니”라며 자신에 관한 생각을 거듭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一生事業이 迂闊 아닌 일 업너와라 / 이 오환 거느리고 百年을 어이흐리”라는 탄식처럼 ‘우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화자는 “아희아 잔 ㄱ득 부어라 醉호여 내 迂闊 닛다”라며 술이라는 수단을 통한 자신의 ‘우환’을 애써 잊는 것으로 자신의 울화를 달래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우환가>의 화자가 자기를 우환한 존재로 규정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나름의 해명을 시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비를 다투는 인간 세상에서의 자기와 사시 가흥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운 자연에서의 자기를 대비하면서 우환하다는 세간의 평가의 이면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하

22) 이상원, 앞의 논문, 2002, 173면.

지만 화자의 근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화자는 자기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태곳적 세계와 성인과의 만남을 꿈꾸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 소망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실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가 정훈의 인간 힘으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고백’²³⁾으로, ‘직서’²⁴⁾의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이해했고, 그 과정에서 ‘우월감’과 ‘좌절감’이 토로되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체성의 측면에서 작가 정훈이 <우활가>에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술을 통해 ‘우활’ 그 자체인 자신의 근심을 애써 잊자는 탄식으로 종결되고 말지만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작가 정훈은 애면글면 자신의 대리자인 화자를 통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끊임없이 토로했다.

III. <우활가>의 문학사적 의미

17세기 국문시가 작가들은 이전 시기 사대부 시가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강호, 우국, 안빈, 오류 등과 같은 전통적 주제의 작품도 창작했지만, 우활이나 궁핍과 같은 17세기 이전 국문시가 작품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활은 17세기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새롭게 부각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²⁵⁾ 특히 우활은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인하게 하는 삶의 전반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문제적이다.

특히 <우활가>의 화자는 자신의 지난날을 우활하다고 규정한다. <우활가>의 화자를 작가 정훈의 대리자라고 상정한다면, 정훈은 왜 자신의 삶을 우활하다고 평가했을까? 나아가 우활이라는 문제적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23) 이상원, 앞의 논문, 2002, 170~172면 참조.

24) 이승남, 앞의 논문, 2008, 86~89면 참조.

25)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迂闊(우활 혹은 오활)이라는 시어를 검색해보면, 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사 작품 중 17세기 이전 작품에서는 이 시어가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17세기에 이르러 박인로의 <누항사>·<노계가>, 정훈의 <우활가>·<용추유영가>, 조우인의 <매호별곡>에서 이 시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이었을까?

우선 우환이라는 용어는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자로가 명분을 바로잡겠다는 스승 공자에게 “선생님의 우환하심이여!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子之迂也。奚其正.]”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주자가 이에 대해 “우는 사정과 거리가 멀은 이름이니, 오늘날 급선무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迂，謂遠而於事情，言非今日之急務也.]”라고 주석을 달았는데 이 주석은 사마천이 쓴 『사기』 『맹자순경열전』에서 맹자가 “도를 이미 통달하자, 제나라에 가서 선왕을 섬겼으나 선왕이 쓰지 못하였고, 양땅에 갔으나 양혜왕 역시 말한 바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현실과 우원하여 사정과 거리가 멀다고 여김을 받았다.[道既通，遊事齊宣王，宣王不能用，適梁，梁惠王不果所言，則見以爲迂遠而關於事情.]”²⁶⁾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기』 『맹자순경열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맹자에 대한 사마천의 평가는 일면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복잡하다. 『사기』에서 맹자는 자신을 우환하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더욱이 양혜왕을 비롯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어떠한 태도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환하다는 평가로 인해 맹자 본인은 정작 벼슬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환하다는 세간의 평가는 맹자 본인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마천은 맹자가 제선왕과 양혜왕을 만나기 전에 이미 도에 통달했다고 기술했다. 또 『맹자순경열전』에 함께 입전된 인물인 추연에 관한 부분에서 사마천은 맹자를 공자와 동등한 이상을 가진 인물로 서술하며, 백이·숙제와 공자 그리고 맹자 모두 세속에 아첨하고 구차하게 영합하려는 뜻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평가한다.²⁷⁾ 비록 당시 위정자들에게 우환하다는, 현실 사정에 우원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맹자는 세속에 아첨하고 구차하게 영합하려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맹자를 입전하면서 무엇을 의도했던 것일까? 도에 통달한 맹자를 우환하다고 여긴 당대의 현실은 함종연횡을 급선무로 하고 공벌을 현명하다고 여기는 시대였다. 반면 맹자는 사마천의 지적처럼 요순과 삼대의 덕을 말하는 이였

26) 사마천, 『맹자순경열전』, 『사기』 권74.

27) “其游諸侯見尊禮如此，豈與仲尼菜色陳蔡，孟軻困於齊梁同乎哉！故武王以仁義伐紂而王，伯夷餓不食周粟；衛靈公問陳，而孔子不答，梁惠王謀欲攻趙，孟軻稱大王去邠。此豈有意阿世俗苟合而已哉！”， 위의 책.

다.²⁸⁾ 사마천은 불의한 현실과 의로운 인물이라는 대비적 구도를 설정하여 맹자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이 구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 맹자가 느꼈을 현실과의 괴리감과 그것이 결코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²⁹⁾

지금까지 ‘우활’의 개념을 검토한 결과, <우활가>의 화자가 자신을 우활한 존재라고 인식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맹자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맹자는 시의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후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출세를 막은 그 답답한 이상 때문에 후세에 영원히 칭송을 받는 아성(亞聖)이 되었다. 작가 정훈이 <우활가>에서 ‘우활’이라는 시어를 19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신의 삶을 맹자를 평가한 ‘우활’에 빗대어 노래한 것은 자신이 동일시한 맹자가 그랬듯이, 자신도 유교적 이상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의 경우처럼, 정훈에게도 불의한 현실은 여전했다. 정훈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우활’은 단순히 정신적 우월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현실로 인하여 의로운 자신은 맹자처럼 우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자기 인식과 더불어 불의한 현실과의 괴리는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절망적 현실 인식이 중첩되어 있다.³⁰⁾

정훈의 <우활가>처럼 ‘우활’이라는 문제적 주제를 공유하는 동시대 작가인 박인로의 <누항사>도 서두에서 자신의 삶을 우활하다고 평가한다.³¹⁾

28) “當是之時，秦用商君，富國彊兵，楚·魏用吳起，戰勝弱敵，齊威王·宣王用孫子，田忌之徒，而諸侯東面朝齊。天下方務於合從連衡，以攻伐爲賢，而孟軻乃述唐·虞，三代之德，是以所如者不合。”， 위의 책.

29) 이상원, 권순희, 이승남 등도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정훈이 자신을 우활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원, 앞의 논문, 1997, 248~249면; 권순희, 앞의 논문, 211~212면; 이승남, 앞의 논문, 2008, 85면.

30) 오선주는 기존 연구에서 우활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권벽(權擘), 김상용(金尙容), 이덕무(李德懋) 등의 시문을 인용하여 ‘우활’의 의미를 대타적 우월감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권벽을 비롯한 이들은 한양을 기반으로 생활하며 일반 사족들이 부러워할만한 관료로서의 생활을 경험한 이들이다. 반면 정훈은 지방인 남원에서 나고 자라 출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재지사족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우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처지가 현격히 다른 이들의 의식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선주, 앞의 논문, 187~192면 참조.

31) 박이정은 <누항사>, <우활가>, <탄궁가> 등의 작품들이 모두 존재와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재인식하는 등 내면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찰이라는 용어는 <우활가>에 나타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갈등과 그로 인

하지만 두 작품의 결말은 무척이나 다르다. <우활가>가 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애써 자신의 우활함을 잇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면, <누항사>는 유교적 신념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고 迂闊홀산 이니 우히 더니 업다
 吉凶禍福을 하날기 부처 두고
 陋巷 김푼 곳의 草幕을 지어 두고
 風朝夕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서 흙 밥 닷 흙 粥에 煙氣도 하도 할사
 (중략)
 貧而無怨을 어렵다 흥건마는
 니 生涯 이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飲을 이도 足히 너기로라
 平生 흥 뜻이 溫飽에는 업노왜라
 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 信朋友 외다 흥리 닐 이시리
 그밖기 남은 일이야 삼긴 더로 살렷노라

- 박인로, <누항사>

이 같은 차이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정훈은 자신을 우활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 불의한 현실과 끝내 화해하지 않았다. ‘벗’이라는 현상적 청자를 설정한 것처럼 <우활가>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함께 할 존재들과의 ‘관계’를 애타게 기대하고 찾았다. 그러나 “人間의 호자 씨여 놀드려 말을 홀고”라는 고백처럼 그는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교언영색의 대명사인 ‘축타’와 ‘송조’, 사람을 미혹케 하는 상상 속 약재인 ‘우침산의 초실’을 언급한 것도 불의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관계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누항사>의 화자도 “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서 / 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齷齪하다”라며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더욱이 “貧困한 人生이 天地間의 나뿐이라”고 좌절도 한다. 하지만 곧이어 화자는

한 외로움의 감정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박이정, 앞의 논문, 195면 참조.

“飢寒이 切身하다 一丹心을 이질는가”라며 자신의 마음을 추스른다. <누항사>의 화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혼란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인로가 전란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의지와 믿음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³²⁾ 그리고 말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계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羲皇盛時” 곧 태평성대로 평가한다. <노계가>에서 현실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며, 화자는 강호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존재로 제시된다. 박인로에게 현실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실존적 문제는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없었다.

박인로와 달리 현실을 불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과의 화해를 거부한 정훈은 <우활가>라는 문학의 공간에서 자신의 실존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 또는 해소되지 못했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낙관적 전망이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적 상황을 문학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계속 말하고자 했다. 현실 세계에서는 비록 고립무원의 처지였지만 문학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자기의 실존적 근거와 삶의 방향을 나름대로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IV. 결론

<우활가>의 작가 정훈과 관련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 불식되었지만, 여전히 그를 향반으로 결박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작품을 평가하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거듭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시각은 결코 옳당하지 않다.

우리가 <우활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라는 존재를 우활한 존재로 만든 세간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정훈 나름의 항변과 자기의 실존

32) “貧困한 人生이 天地間의 나뿐이라 / 飢寒이 切身하다 一丹心을 이질는가 / 奮義忘身해야 죽어야 말녀 너겨 / 于橐于囊의 줍줍이 모와 녀코 / 兵戈五載에 敢死心을 가져 이셔 / 오년 전란에 죽을 각오 굳게 하고 / 履尸涉血해야 몇 百戰을 지니연고”, <누항사>.

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특히 정훈은 <우활가>라는 문학의 공간에서 자기라는 존재의 실존적 근거와 삶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그가 문학이라는 공간에서 자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은 제대로 된 현실에서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로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관직이라는, 사족이 꿈꾸는 이상의 공간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의 공간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원의 유력한 사족이었던 최연(崔蒨)·최온(崔蘊) 형제와 교유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도, 『행적』에 수록된 것처럼 의병 활동에 정훈·정원형 부자가 참여한 것도 모두 자신들이 서 있는 현실의 공간이 보잘 것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훈은 문학이라는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과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남김없이 드러내면서 자기의 실존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훈과 그의 가문은 남원 지역에서 나름의 사회적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남원원동향약(南原源洞鄉約)³³⁾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 증거이다. 이후 정훈의 손자 정휴(鄭庠)와 증손자 정상박(鄭尙樸)은 모두 문과에 급제해 환로에 진출한다. 정훈이 사족으로서 꿈에 바라지 않던 이상이 드디어 한 세대를 걸러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소론의 영수 박세채가 출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남원의 재지사족인 정훈의 묘비명을 작성하게 된 것도 과거에 급제한 후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³⁴⁾

정훈의 <우활가>는 비참한 자신의 상황과 그에 따른 심정을 표현한 작

33) 1638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시 주천면 원천 일대 향약 관련 문건을 집성한 『남원원동향약(南原源洞鄉約)』의 『원천동안(源泉洞案)』에서 정훈이 동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보인다. 해제에 따르면 『원천동안』은 1638년(송정 11년; 인조 16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성 연월을 칼로 오려내고 새로 종이를 붙여 ‘十一年 八’이라 기록되어 있다.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해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작성 시기를 그대로 확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또한 여기에서 수록된 명단 중 ‘鄭文炯’과 ‘鄭文烜’의 경우, 정훈의 아들이 ‘鄭元炯’과 ‘鄭元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설령 작성 시기를 1638년으로 인정하더라도 정훈의 이름이 맨 앞에 있다는 사실은 정훈이 남원 지역의 주도적 사족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관례상 당시에 가장 연장자였던 정훈을 대우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전북향토문화연구회 편, 『남원원동향약(南原源洞鄉約)』,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4, 1~489면.

34) 박세채, 『효자경주정공묘갈명(孝子慶州鄭君墓碣銘)』, 『남계집(南溪集)』 권73 참조.

품으로, 자기의 실존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의 산물이다. 전시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우활’이라는 문체적 주제를 공유한 동시대 작가인 박인로의 <누항사>와 <노계가> 등과 비교해 볼 때, <우활가>는 전쟁과 당쟁으로 점철된 역사적 전환기인 17세기를 살았던 재지사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치열한 고민이 녹아든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논어』, 『박물지』, 『사기』.

박세채(朴世采), 『남계집(南溪集)』, 한국고전종합DB.

전북향토문화연구회 편, 『남원원동향약(南原源動鄉約)』,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4.

『경주정씨세고(慶州鄭氏世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동인 편역, 『경주정씨세고(慶州鄭氏世稿)』, 회상사, 2002.

정훈, 『水南放翁遺稿(影印)』, 『한남어문학』 2,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73.

정훈, 『수남방옹정공가장행적(水南放翁鄭公家藏行蹟)』(숭실대학교 소장)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데이터베이스.

2. 단행본

김성우, 『조선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 강만길 편,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박요순, 『정훈과 그의 시가고』, 『한남어문학』 제2집, 『정훈과 그의 시가』,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73; 재수록: 『한국시가의 재조명』, 탐구당, 1984.

신경숙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이상원, 『사족층의 분화와 정훈의 시가』,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1; 재수록: 신영명·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정소연, 『조선 중·후기 시가의 양층언어문학사』, 새문사, 2014.

한창훈, 『박인로·정훈 시가의 현실인식과 지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재수록: 한창훈, 『17세기 향반계층 시가의 형성: 박인로·정훈을 중심으로』, 『시가고육의 가치론』, 월인, 2001.

한창훈, 『17세기 향반계층 시가의 강호 인식』, 신영명·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루이스 부레거, 홍강의·이영식 역, 『인간 발달의 통합적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3. 논문

강경호, 『정훈 시가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 재고』, 『한민족어문학』 제49집,

- 한민족어문학회, 2006, 193~230면.
-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제39집, 민족어문학회, 1999, 194~221면.
- 김문기, 『鄭勳의 <憂喜國事歌>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31집, 국어교육학회, 1999, 99~125면.
- 류속영, 『정훈 문학의 현실적 토대와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제35집, 국어국문학회, 1998, 129~154면.
- 박이정, 『17세기 전반기 가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36면.
- 오선주, 『정훈의 ‘우월 의식’에 대한 재고』,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185~209면.
- 이상원, 『정훈 시조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11집, 우리어문학회, 1997, 237~256면.
- 이승남, 『17세기 강호가사의 전환기적 서정-정훈의 <용추유영가>와 <수남방옹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28집, 우리어문학회, 2007, 193~222면.
- 이승남, 『정훈가사의 이념과 현실의 정서적 형상화-〈성주중흥가〉·〈탄궁가〉·〈우월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4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69~96면.
- 조은별, 『水南放翁 鄭勳 국문시가의 세계 인식과 표현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90면.
- 최상은, 『정훈 가사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문학적 형상』,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361~382면.
- 최홍원, 『정훈 시가 다기성에 대한 시학적 이해』, 『국어국문학』 제159집, 국어국문학회, 2011, 147~178면.

The literary world of *Ubbwalga*(迂闊歌) and its meaning

Jung, Ki-Sun

Up to now, prior study on *Ubbwalga*(迂闊歌) has paid much attention to the social status of writer Jung Hoon(鄭勳) and to interpret the emotion expressed in his work. Especially,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about the emotion expressed in the works.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ld of *Ubbwalga*(迂闊歌) accurat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17th century Korean classical poetry has expressed concern for identity in their works. This study focuses on this point and interpreted the work world of *Ubbwalga*(迂闊歌) in terms of identity. And Uhhwal(迂闊) is a new theme in the literary history of 17th century. This study focuses on this point and examined the meaning of loyalty. And this study examined the literary historical meaning of *Ubbwalga*(迂闊歌) through comparison with the works of Park In-ro(朴仁老), a contemporary writer dealing with Uhhwal(迂闊).

keywords: Jeong Hoon(鄭勳), Uhhwalga(迂闊歌), Park In-Ro(朴仁老), Nuhangsa(陋巷詞), 17th century, Gasa(歌辭).

접수일자: 2017. 9. 30. 심사기간: 2017. 10. 1.~2017. 11. 10. 게재결정: 2017. 11. 10.
